충장로 그 많던 휴대전화 판매점 어디갔나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보조금 규제 폭탄

1년새 줄줄이 폐업…130곳중 20곳 남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서 30㎡ 규모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윤모(42)씨는 3년 전 1억원을 투자해 창업했지만 얼마 전 가게를 내놨다. 권리금도 포기하기로 했다. 종업원을 줄이고 직접 판매에 나섰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치킨집 보다 흔한 게 스마트폰 판매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업했던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제 폭탄에 휘청거리면서 폐업과 업종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매장에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매장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을 독려하는 통신사들의 압박에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폐점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휴대폰업계는 한해 동안 입점하는 소매점 10곳 중 6곳은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달 2000만원 이상 버는 휴대전화 소매점은 10군데 중에 1군데에 불과해 넉넉히 남는 장사를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 때 업계에서 잘 나가는 상권으로 판매점들이 몰려 있던 충장로 일대의 변화에서 이러한 상황은 쉽게 감지된다. 1년 전 130여개 였던 판매점이 지금은 20여개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40여개의 판매점이 몰려있던 충장로 2가에는 현재 영업하는 판매점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영업을 하는 판매점도 권리금을 포기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런 폐업 사태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충장로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30건 이상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손님이 있었지만 올해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이익도 절반 이하로 줄어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팔면 이통사(30만~60만원)와 휴대전화 제조사(10만~30만원)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줘도 30만원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으나 이젠 '언감생심'이라는 것. 정부가 판매점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27만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판매가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번호이동 건수의 급격한 감소도 대리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과 5월 번호이동 건수가 월 평균 40만 건에 그친 것에서 시장의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경쟁으로 번호이동이 급증했던 2010~2012년 최대 월 150만 건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북구 용봉동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1)는 "지난해 말 포화상태에 이른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초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여파로 얼어붙었다"면서 "보조금 제한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휴대폰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이라며 "영세상인인 판매점은 보조금이나 정부 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소한 생존권 대책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형광컬러 패션 선글라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패션잡화매장에 형형색색의 이색 선글라스가 선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올해는 꼭 워크아웃 졸업합시다"

금호타이어 노사 '4년만의 무분규 단체교섭' 조인식

금호타이어가 10일 광주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모인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2013년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끝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오전 김창규 사장과 이광균 노동조합 대표지회장 등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조인식은 노사 양측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합의서 서명과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김 사장과 김승철 금속노조 광전지부장이 단체교섭 약정서에 최종 서명한 뒤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김 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합의안을 이끌어낸 교섭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번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돼 금호타이어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균 노조 대표지회장도 "오랜만에 분규 없이 교섭이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노사가 워크아웃 졸업이라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좋은 결과를 내서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과 이광균 노동조합 대표지회장이 1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단체교섭 약정서를 교환하며 올해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 단체교섭을 최종합의해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 분쟁 없이 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합리적인 교섭문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824.16 (-6.19)	515.64 (-3.70)	2.94% (-0.05)	1135.80원 (-5.90)

6월 실업률 광주 3.0% 전남 1.6%

작년 동기비 소폭 상승

광주·전남 지역의 6월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경제활동인구는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9%(2만1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6월 취업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9%(2만명) 증가하며 고용률이 57.0%로 0.6%p 올랐다.

광주의 6월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3%(1000명) 증가하며 실업률이 3.0%로 0.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제활동인구는 9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8%(7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0.9%p 하락했다.

6월 취업자 수는 93만6000명, 고용률은 63.1%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각각 0.3%(3000명) 증가, 1.1%p 하락을 기록했다.

6월 실업자는 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4.7%(5천명) 증가하며 실업률이 1.6%로 0.5%p 높아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업과 인권'…광주상의 상반기 워크숍

오늘, 기업 사회적책임 업무 담당자 등 50여명 대상

광주상공회의소가 11일 오후 4시 광주상의 1강의실에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지역 소재 기업체 대표 및 사회적책임(CSR) 업무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국내 기업인권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선임연구원을 초청,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실시된다.

광주상의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난해 광주지역 기업인권경영증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인권의 개념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추세 및 국내외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기업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상반기 부가세 고강도 사후검증

국세청이 올해 1기(1~6월분)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7월 25일)을 앞두고 고강도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올해 당초 계획했던 세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포착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인 79조2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이나 적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원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세는 지난해 55조6676억원을 걷어 총 세수 192조926억원의 29%를 차지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 덩치가 큰 세수 항목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년도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한 건수는 3만8000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4만400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3013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30.2%나 늘었다. 올해 하반기 사후검증 대상도 상반기보다 2000명 많은 4만명으로 잡았다. 그만큼 부가세에 대한 국세청의 기대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 결제 유도,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한 세금 탈루가 집중 추적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매년 1월)로 축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